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53) - 권중 충신문

# 임진왜란때 적과 싸우다 목숨을 잃은 권중 군수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40호  
· 소재지 :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 규모 : 1.96평(가로 2.1m, 세로 0.4m)  
· 비고 : 권중  
선생은 명종 9년(1554년) 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위치한 권중 충신문

에 출생했다. 선조(1592년)에 권중은 금산군수로 나아가 있었는데 이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전 4월14일 왜적

한편으로는 고경명과 조한에게도 격문을 보내면서 힘을 다하여 싸울 것을 격려했다.

그러나 왜병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생에 보지도 못한 조총을 쏘아대며 계속 쳐들어왔다. 이때 권중은 금산에서 왜적을 만나 접전하던 끝에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권 군수는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크게 절하고 "내 조국을, 내 조국을..."하고 울부짖으며 죽어 갔다. 뒤에 선조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탄식과 애도를 표하였으며 충신정려를 명했다.

정려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다. 권중 충신을 좀더 알기 위해서는 묘갈명역문을 참조하면 된다.

## 세익스피어 에세이

# 모든 속세의 욕망을 뛰어넘는 사랑



박 정 근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올해의 화두는 정해년이다 보니 단연 '황금 돼지'다. 돼지는 먹성이 좋아서 그런지 욕망을 채우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말미암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서민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욕망을 실현시켜 줄 정권으로 지지했던 행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치솟는 집 값에 절망한 나머지 대기업이나 특권층의 지지를 받는 아당에게 손을 들어줄 모양이다. 인간이란 배가 고프면 당연히 주린 배를 채워줄 자를 높게 평가하게 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유, 평등, 정의, 사랑 등은 삶의 사치품이 되어버리고, 노예라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은 착각이 든다.

“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서 권력, 물질, 힘, 언변, 개성 등등을 내세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보편적 잣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진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 ”

이런 추세에 힘입어 한 야당 대선 후보는 지지도가 50프로에 육박하여 벌써 대권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형국이다. 그가 추진했던 정계전 복원사업이 경제 활성화의 상징이 되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신의 손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인생이 정말 그런 것인가. 그런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내면적 가치들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인가. 우리 선조들은 현세보다 훨씬 빈곤했어도 선비들은 청빈낙도를 즐겼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두려워하라고 외쳤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아도 그보다 높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에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삶은 배부른 돼지보다 개체로서의 인격이

존중받고 그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심지어 기성 황진이조차도 높은 관료들의 수청을 들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구현하고, 그녀가 추구하는 진정한 예술의 혼을 살리고자 했기 때문에 후세까지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닌가.

세익스피어는 세상 사람들의 알팍한 삶의 모습을 그의 소네트에서 마음껏 비웃는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에서 권력, 물질, 힘, 언변, 개성 등등을 내세워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보편적 잣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진정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어떤 이는 자기의 문법을 자랑삼고, 어떤 이는 솜씨를 자랑삼고, 어떤 이는 재산을 자랑삼고, 어떤 이는 체력을 자랑삼고, 어떤 이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 유행의 옷을 자랑삼고, 어떤 이는 매나 사냥개를 자랑삼고, 어떤 이는 말을 자랑삼고 있소. 사람은 기질에 따라 각각 다른 만족감을 갖게 마련이요. 이 만족감 안에서 사람의 기질은 무엇보다도 기쁨을 찾아내게 마련이요. 그러나 그런 개성적인 취미는 행복의 기준이 못되고, 이것들은 다 하나의 최고의 보편적인 것을 능가하지는 못하오.(소네트 91)”

세익스피어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편적 가치 중에서 단연코 사랑을 꼽는다.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를 받으며 고관대작들의 귀여움을 받는 것보다 산골 초가에서 자신의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호젓하게 사는 것을 택했던 황진이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을까.

세속적인 부자, 관료 나부랭이들의 판단보다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그녀의 영혼과 운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명의 연인이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인생에서 두려워해야 할 한 가지는 현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의 상실이 아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것이리라.

“나에게는 그대의 사랑은 훌륭한 문벌보다도 고귀하고, 재물보다 값지며, 호화스런 의복보다도 자랑스럽고, 매나 말을 갖는 것보다도 기쁨이요. 그대를 갖고 있는 나로서는 모든 사람의 자랑거리를 갖고 있다고 자랑삼을 수 있는 것이요. 그대가 이 기쁨을 도로 빼앗아가거나 앓을까 하고 나는 떨고 있소. 이것만이 나의 슬픔이며,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있소.(소네트 91)”

이 소네트의 화자가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에로스적 사랑만은 아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구원해줄 신앙적 구세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우리를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죽마고우도 될 수 있다. 그 대상이 속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대상이라면 말이다. 이 사랑은 결코 육체의 찰나적인 쾌락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실존적 가치에 맞닿아 있는 근원적인 것이기에 그 것의 결핍은 우리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메마르게 하는 것이다.

올해는 우리들의 물질의 황금돼지를 구하기보다는 영혼의 샘을 파헤치는 해가 되기 바란다. 그 사랑의 샘은 대권주자가 결코 해결해주지 못한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영혼의 갈구함을 깨닫고 스스로가 추구하는 것이다.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갈구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의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교육에세이 26

# 새 출발의 지혜

이번호부터 포천여자중학교 지정주 교장의 교육에세이를 연재한다. 첫 부임지인 의정부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교장으로 승진해 포천여자중학교로 부임한 지 교장의 다양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가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와 독자들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주)

안녕하세요!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다시 떠났던 2006년의 석양이 서산을 넘어가고 대망의 2007년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600년만에 맞게 된다고 하는 황금 돼지해의 새 아침이 환히 밝아 왔습니다. 저 푸른 동해 물결을 헤치고 힘차게 용솟음치며 떠오르는 붉은 태양과 함께 새 해 첫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새 해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지니고 가꿀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쁨과 보람을 느낀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또한 아쉬움 속에서 과거 속으로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들의 가슴에 추억으로 자리 매김할 것은 분명할진대, 이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갖고 힘차게 새 출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만이 내일의 승리가 될 수 있으며, 풍요는 오직 땀 흘리는 자에게만 찾아오는 값진 결실인 것이며, 오늘의 꿈이 희망의 밑거름이 되어 행복의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오늘의 노력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큰 꿈을 갖고 오늘을 열심히 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전에 저의 학창시절에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시던 말씀 중에 Boys, be ambitious!(청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으라!)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 당시 이 말은 10대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영감을 행사했던 말입니다. 학창 시절 저는 그 말씀을 통해 깊은 감동과 자극을 받았기에, 제가 받은 감동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청소년 여러분들이 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지니게 되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목표를 지니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수립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공은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혼을 담은 노력은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잠을 자는 자 꿈을 꾸고, 독서하는 자 꿈을 이룬다”는 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독일이 낳은 대문호인 괴테(Goethe)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계획은 아침에 있고, 한 해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인생의 계획은 청소년 시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첫 출발인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분발하십시오. 분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자 탐은 자기 능력의 18% 밖에 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굳은 각오로 오늘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알차게 실행에 옮기고, 되도록 다음날인, 내일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날 그날이 일년 중에서 최선의 날입니다.

인생이란 모래 시계의 모래처럼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지만 그 하루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하루라는 시



지 정 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간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헛되이 소비하고 나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인간을 가리켜 이성의 동물, 지혜로운 동물이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출발의 지혜라 할 것입니다. 시작이 가장 중요하듯이 첫발을 내딛는 마음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발 밑 한 발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길을 한번 잘못 들게 되면 아무리 잘 뛰어도 소용이 없다.”는 격언도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할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의 보다는 나은 진보는 없는 것입니다.

큰 꿈으로, 뜻을 높게 갖고, 능력을 집중하여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생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밝은 희망을 품고 노력을 계속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천의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고 웃으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새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맛을 알고 다시 찾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2층 풍천민물장어 16년동안 한결같은 맛을 제공하고 있는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최상급 이동갈비 사용으로 육질에서 당연 으뜸입니다.



신메뉴 출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250석 보유, 연중 예약 실시★  
★고객을 위한 차량 항상 대기★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